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 순례자

◎ 2005년도 표어 ◎

교회, 세상의 소망(벤전 2:9~12)

◎ 행동지침 ◎

- 1. 이웃의 등대
- 2. 민족의 구원선
- 3. 세상의 나침반

† 발행인 : 이종윤 † 발행처 :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 여호와와 나의 반석 I

(시편 18:1-24)



이종윤 목사(서울교회 담임)

**그리스도인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삶의 종착점에 이르렀을 때 뒤를 돌아보면서 다윗이 그랬듯 과거 여러 번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히 믿을만한 분이십니다.**

시편 18편은 감사의 노래입니다. 바로 전편에서 다윗은 자기를 파멸시키려는 원수들이 움킨 것을 찢으려는 사자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는 구원을 의치면서 하나님이 자신을 돕기 위해 오실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18편에 와서는 구원 받은 사건을 감사하는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왕권(Kingship)시로서 다윗과 그 후대의 다스림 위에 내리신 축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은 지상의 왕도 되겠지만 그보다는 천국을 소유하신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여호와여 이르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시 18:49). 이스라엘 뿐 아니라 이방 나라들까지도 감사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유대 와 열방을 모두 다스리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은 또한 승전가로서 삼한 22장의 복사판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실 이 두 책은 어느 것이 먼저 기록된 것인지 확실치 않으나 둘 다 다윗이 쓴 것입니다. 다윗의 일생은 하나님께 구원받은 일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사울 왕을 피해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으로 피난을 갔을 때에도 이방 나라들로부터 수 차례의 공격을 받았을 때에도 이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배신의 쓴 잔을 마시며 산으로 도망을 갔을 때에도 항상 하나님께 보호와 구원을 받았습니다.

### 1. 하나님께 찬양

은혜를 입은 자의 일차적인 응답은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에게 감사하며 찬양하는 일입니다. 시인은 본편을 찬송으로 시작했고(1-3절) 마지막도 찬송으로 마무리합니다(46-50절). 시인은 치명적인 위난으로부터 구원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총임을 고백하며 찬송하였습니다.

다윗은 군사적 승리를 가져다주신 하나님을 ‘힘’, ‘방패’, ‘구원의 뿔’로 묘사했고, 원수들로부터 구원하신 것에 대해서는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산성’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표현한 것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여호와와 나의 반석’입니다. 이것은 2절에서 2번, 31절과 46절에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이처럼 반복하며 강조한 ‘하나님은 나의 반석’은 시편 18편의 주제입니다.

반석은 바위로서 피난처며 햇빛을 가리는 그늘, 곧 요새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석은 기초석이며 신실하신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반석은 큰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은 다윗을 환난에서 구원해주셨을 뿐 아니라 민족들로 하여금 자기에게 복종하도록 역사해 주셨습니다(47절). 이와 같은 복에 대해 다윗은 일시적이 아닌 영원한 찬송을, 지역적이 아닌 열방 중에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받은 은혜가 큰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큰 찬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전체가 찬양이 되어야 합니다. 입술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 2. 다윗을 구원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하신 일은 너무 많습니다. 원수의 손에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가 요동하며 폭풍과 불이 나오는 하나

님의 응답이 있었습니다(7절). 이것은 다윗이 직접 경험 했 다기보다는 과거 출애굽 사건, 시나산 사건, 여호수아와 사사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 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여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6절).

4-6절은 환난 중에 빠진 시인이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기도는 환난이 지나간 다음에도 계속됩니다. 실로 놀라운 신앙입니다. 기도는 위급할 때만 사용하는 구급약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윗이 사망의 율가미에서 드린 기도를 들으 셧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누가 하던, 어디서 하던 하나님이 받지 않으실리 없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간 구만이 아니라 반드시 감사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시나산에 강림하시어 모세에게 율법을 주신 하나님, 가나안을 정복할 때 원수들에게 우박을 내리신 하나님, 출애굽시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게 하신 하나님, 다윗은 그때 그 큰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도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 3. 하나님은 왜 다윗을 구원하셨나?

“내가 여호와와 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21절).

하나님은 행위가 깨끗하고 하나님의 도를 순종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습니다. 죄를 물마시듯 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일이 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밋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인 다윗을 깨끗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가운데 깨끗한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죄를 기억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침상이 눈물에 떠다녔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이같이 철저한 회개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회개한 다윗을 깨끗이 여기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 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을 때 즉각적으로 회개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회개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들으십니다.

###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반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누구나 완전한 삶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삶의 종착점에 이르렀을 때 뒤를 돌아보면서 다윗이 그랬듯 과거 여러 번의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아 주었다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딤후 2:13).

우리의 반석이신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영원히 믿을만한 분이십니다.

우리 모두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2006년도 찬양대원 임명

## 오늘 예배 시간에

2006년도를 섬기며 봉사할 일꾼 임명이 금주에도 계속되어 오늘 예배시간에는 2006년도 찬양대원 임명이 있다.

오늘 임명받는 찬양대원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좋은 재능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리로 성전에서 찬양을 담당했던 레위인들과 같이 충성스럽게 봉사하며 하나

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기도로 준비하도록 한다. 은빛 찬양대와 시온 찬양대는 지난 수요일 수요일 예배 시간에 임명을 받았다.

오늘 임명받게 되는 찬양대원들의 명단은 주보에 간지로 삽입되어 있다. 다음 주일에는 2006년도 교회학교 교사 임명이 있다.

# 북한 인권과 신앙 자유를 위한 국제 기독교인 대회 개최

## 12월12일(월) 오전 9시 웨스트민스터 홀

지금 북한은 성경을 읽고 기도 하는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고문과 처형을 일삼고, 주민들의 모든 기본권을 갖은 방법으로 침해하여 인권과 자유라는 단어는 오직 김정일에게만 찾을 수 있는 현생 지옥이다. 이같은 북한의 주민의 인권과 신앙의 자유를 위한 국제 기독교인 대회가 우리교회에서 열린다.

내일(12일, 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101호 웨스트민스터 홀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서경석 목사)와 신학연구위원회(위원장 이종윤 목사)가 공동주최한다.

이번 국제 기독교인 대회는 Michael Horowitz(미허드슨 연구소 연구원), Dr. Scott Flipse(미국종교자유위원회 아시아 담당국장)등 세계적 저명인사가 참석하여 연설을 하고, 북한의 현실에 대한 탈북난민들의 증언도 있을 예정이다.

북한 주민의 인권과 종교의 자유를 위해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주님의 크신 역사속히 이루어지도록 성도 여러분의 뜨거운 기도가 요청된다.

# 2006년 순결서약 계속 접수 중

## 2006년 1월1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거행

서울교회는 13세 이상 젊은이들이 세상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과 소망으로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몸을 구별하여 거룩하게 하라"(레11:44)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루고자 오는 2006년 1월1일(주) 찬양예배 시간에 순결서약식을 갖는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아직 순결서약을 하지 않는 13세 이상 미혼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순결서약식 참가 신청을 받고있다. 참가신청서는 각 교회학교 담당 교역자와 사무국에 비치되어 있으며 접수는 12월25일(주)까지

받는다.

순결서약식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가 펼치고 있는 정직, 질서, 사랑, 실천운동의 일환으로 이종윤 목사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우리교회가 가장 먼저 1995년 첫 주에 서약식을 개최한 이래 12년째 계속하여 거행하고 있다.

순결서약을 한 젊은이들에게는 순결 서약을 항상 상기할 수 있도록 부모와 후원자의 지원으로 '순결반지'가 주어진다.

# 교역자 일부 변경된다

그동안 우리교회 부목사로 수고하시던 이용식 목사가 청주 한별교회로 청빙을 받아 사임을 하고, 유아부를 지도하던 박금실 전도사와 대학부와 영어예배부 부지도 손재영 선생이 개인사정과 학업을 위해 사임함에 따라 부서 담당 교역자가 일부 변경된다.

서명철 목사가 부목사로 청빙되어 9,10교구, 전도위원회, 대학부, 학습세례반, 전도학교, 시설관리위원회, 차량관리위원회 지도를 담당하게 된다.

그리고 박광일 전도사가 도서실, 호산나 전문대, 호산나 대안학교, 방과후 교실 지도를 담당하고, 주원순 선생이 사랑부 지도를, 서홍위 전도사가 유아부 지도를

담당하게 된다.

새로 부임한 서명철 목사는 1953년생으로 강원대학교 영어교육과, 장신대 신대원을 졸업하고 미국 맥코믹 신학교(장신대공동학위) 목회학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영암교회 부목사, 동광교회 담임목사, 강남노회 총무를 역임한 바 있다. 사랑부 지도를 맡은 주원순 선생은 강원대학교 회계학과, 서울신학대학 상담학과를 졸업한 전문상담사로 서명철 목사의 부인이다. 유아부를 지도하는 서홍위 전도사는 중국 연변대학교 역사과, 연변신학원을 졸업하고 아세아 연합신학대학원 재학 중이다.

# 군파견 선교사 임지 변경

11월 27일 헌당예배시간에 파송받은 군파견 선교사이경현 목사의 임지가 변경되었다.

이경현 목사는 육군 군종 목사단과 국방부 군종실의 요청에 따라 현 5사단 35연대 1,2세대 지역에서 6군단 706특공연대, 500-2사격대, 6포병교육대대 연합교회인 새소망교회 담임목사로 12월1일부터 부임하였다. 활기차고 은혜로운 사역을 위해 기도하기 바란다.

# 도서실·차량관리부 봉사자 모집

도서실과 차량관리부에서 봉사할 성도를 모집하고 있다. 도서실은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간 오전 10시부터 오후 10시까지, 주일에는 오후 시간(찬양예배 전)에 개관을 한다. 이에따라 도서실 회원 가입 및 도서대출 등을 도울 봉사자의 손길이 많이 필요하다.

또한 차량관리부도 주일 성도들의 차량을 안전하게 정리할 차량관리부원을 모집하고 있다. 지난 주 임명을 받았으나 아직 많은 손길이 부족함으로 주일에 봉사할 성도들을 기다리고 있다.

# 스데반회 회칙 개정

스데반회(안수집사회)의 회칙이 일부 개정되어 스데반회 대표의 명칭을 간사에서 회장으로 변경하였다.

# 금주의 성구

만일 하루에 일곱 번이라도 네게 죄를 짓고 일곱 번 네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눅17:4-5)

If he sins against you seven times in a day, and seven times comes back to you and says, 'I repent,' forgive him." The apostles said to the Lord, "Increase our faith!"

(Luke 17:4-5 [NIV])



2006 위원장에게 듣는다.

# 중심을 바치는 2006년이 되기를...



오정수 장로 (당회서기)

교회의 모든 것이 한 단계 마무리 되었습니다. 튼튼한 반석 위에 터를 닦고 주재할 수 없는 열정과 눈물의 기도, 기쁨의 헌신으로 세운 하나님의 서울교회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졌기

때문입니다.

서울교회는 헌당과 더불어 어두운 세상의 등불이 되고 교계의 본이 되기 위한 모범 교회로서의 인턴기간을 비로소 마쳤습니다. 이제는 교회의 역량을 총동원해서 세상을 향해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사명을 본격적으로 감당하려고 합니다.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는 말씀을 가지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새로운 첫 발걸음을 이제 시작하려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는 것이 더 어렵다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무형의 영광을 온전히 주님께 돌리기 위해 당회는 이전보다 더 많은 회생과 헌신을 할 것을 다짐합니다. 예수님 사랑의 본을 보이는 서울교회가 되도록 당회장 이종운 목사님을 중심으로 모든 조직들이 협력하고 아름다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교회의 계획과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이고 겸손한 마음으로 맡은 직분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서울교회 성도 여러분, 더욱 사랑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교회가 하나 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각 기관과 부서를 이끌어가는 일꾼들을 귀히 섬기십시오.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실 주님을 생각하며 오로지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각자가 맡은 위치에서 충성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건축을 위해 마음 한 구석에 고이 간직했던 세상과 이웃을 향한 열정들을 마음껏 펼칠 때입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지금부터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십시오. 주님께서 서울교회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기쁨으로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노은환 장로 (기획위원장)

은 교회가 감격과 큰 기쁨을 가지고 교회설립 14주년 감사, 예배당 헌당, 서울 암송필사성경 봉헌, 선교사 파송식 그리고 장애인 전문대학 및 대안학교 창설 선포식을 갖게 해주신 우

리 하나님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새해에는 또 어떤 계획을 가지시고 우리를 어떻게 인도 하실까 하는 것을 생각하면 마음이 설레고 가슴이 뛰는 것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감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기쁨이 넘치고 힘이 넘쳐 더 잘 달려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감격하지 않을 수 없고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우리 모두는 교회의 3대 목표인 교육과 선교와 구제의 사역을 감당하는 일에 나 자신이 어떻게 쓰임 받을 수 있는지를 잘 살펴봐도 적어도 한 분야에는 온전히 헌신하는 한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아니 온 교회가 동참하는 사역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앞장서서 달려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뒤에서 밀어주며 격려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몸으로 물질로 헌신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조용히 기도로 헌신하는 사람도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섯 달란트를 받아 다섯 달란트를 남긴 종이나 두 달란트를 받아 두 달란트를 남긴 종에게 똑같은 칭찬과 상급을 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양보다 질에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외적으로 드러난 것 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새해에는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에 모든 성도가 동참하여 교회설립 15주년에는 더 큰 감사를 우리 주님께 드리는 한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김영준 장로 (예배위원장)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요 4:24)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할 수 있는 가장 고상한 행위로 여호와의 경배하기 위함입니다.

성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히 선포되고 자녀 된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지친 영혼이 소생되고 새 힘을 얻으며 우리의 빌 바를 알게 하십니다.

땅 위에서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으며 성도들은 예배자로서 최고와 최선의 정성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주일예배를 위하여 일주일 내내 준비하는 마음이어야겠으며, 성전 문을 들어서서는 순간부터 거룩한 긴장이 있어야겠습니다.

적어도 예배에 방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하게 조심하고, 예배드리고 있는 장소 바로 문밖에서 마음 놓고 떠든다든지, 지나치게 노출되는 차림, 자기자리를 정해 놓고 고집한다든지, 습관적으로 지각하는 일 등등...

거룩하고 경건으로 드러야 할 예배가 오늘날 많은 오류를 범하면서 예배 아닌 예배를 드리는 이 시대에 우리 서울교회는 얼마나 질서 있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이 일을 돕기 위해 부족한 사람을 예배위원장으로 섬기게 하시니 감사할 뿐입니다.

그 동안 많은 수고를 하신 윤영국 목사님을 비롯하여 시계바늘이 움직이듯 빈틈없이 조용하게 봉사하신 모든 예배위원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도 변치 않는 믿음과 헌신으로 충성하실 것을 부탁드리며 주님의 은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 을 성탄절은...

함박눈이 내리고 거리에는 구세군 남비 종소리와 상점에서는 캐롤이 울려 퍼집니다. 이제 성탄절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을 성탄절은 먼저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신 날, 산타와 선물, 유희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감사와 기쁨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을 성탄절은 나누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고를 때 지금도 추운 곳에서 떨고 있을 어린이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성탄절도 모르고 배고파서 더 추운 북한의 어린이를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을 성탄절은 감사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1년동안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구원 받음을 감사하며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을 성탄절은 준비하는 성탄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은혜받는 성탄절이 되기를 준비합니다. 을 성탄절은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는 성탄절이 되길 바랍니다.

-유은경(편집부)



장로 가정탐방 - 최학인 장로 가정

#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1986년 만 40세의 나이로 장로 장립을 받게 된 최학인 장로님은 이종윤 목사님의 말씀을 오래 사모해 오다가 1995년도부터 서울교회에 출석하였고, 이듬해 예배와 말씀에 감동되어 서울교회에 등록한 후로 벌써 10년의 세월이 흘렀다.

평양에서 증조부가 도편수의 일을 맡아 선교사들의 사택을 지어주면서 예수님을 영접한 후로 증조부와 조부가 장로님으로, 승의여고 교목실장을 지내신 선친과 김포장로교회에서 시무하신 외조부께서는 목회자의 삶을 사셨고, 역시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형님을 비롯하여 3남 1녀의 형제분들과 오늘날 최소 회 권사님과 슬하에 수정(29), 광혁(27)에 이르기까지 5대손이 신앙의 유산을 물려 받았다. 최장로님의 선친께서는 당시 유력한 일류교교의 진학도 마다하고 3형제를 모두 기독교학교로 보내고 삶과 신앙이 하나가 되어야 함을 힘써 가르치며 모태신앙으로 자



란 형제들에게 그 뿌리만큼 튼실한 믿음의 가치를 뻗으며 살 수 있도록 참지혜를 가르치셨다.

축산업협동조합의 동물병원 원장으로 근무하시는 최학인 장로님은 주일 저녁 예배를 마치면 임지인 강원도 인제로 내려가 평일을 보내고 금요일 저녁 교

회와 가정으로 돌아오는 일상을 보내고 계신다. 생각할 여유의 시간이 많은 만큼 말씀을 만나고 묵상하는 시간이 많은 이즈음은 늘 새롭게 만나주시고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넘치게 감사한 시간들이라고 한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이 나오리라"(욥기 23:10)는 말씀 그대로 지나온 삶을 돌아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지나왔음을 깨닫게 되고,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내 하나님이 되셨사오니"(시편 22:10) 노래한 다윗과 같이 고백과 감사가 이어질 뿐이다.

최 장로님은 교회가 부흥하고 새가족이 늘어나면서 교회의 여러 사역이 풍성해지고 보다 체계적이고 질서있게 이루어지는 가운데에서도 늘 기억할 것은, 우리의 말은 바 각처에서 소명을 충성되어 이루고 감당하는 일이 우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하셨다.

또 장로님은 앞으로의 주신 비전을 위해 전진하는 서울교회가 먼져된 자나 니중된 자나 하나가 되어 목회자가 제시하는 방향에 순종하며 하늘의 뜻과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할 것임을 강조하셨다. 말은 직분을 잘 감당하며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충성하는 것만이 기도의 제복이라고 고백하시는 장로님은 지금 초등부 부장이며 교육 1극 국장으로 섬기고 계신다. 장로님 가정에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이 늘 함께 하시길 기도드립니다.

나소정(편집부)

만민에게 전도 - 비전2020

## 진격대대를 다녀와서

이준호 집사(2교구)

"승리쾌감, 질주본능, 진격대대, 행동으로 실천"

중부전선 최전방에 위치한 육군 제5보병사단 35연대 1대대 정문을 들어서자 힘찬 구호와 함께 잘 정돈된 연병장에 활기찬 장병들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서울교회 족구팀은 우리교회의 군 선교사역을 담당하고 계시는 이경현 목사님과 박용진 대대장님을 비롯한 전부대원들의 열렬한 환영속에 집을 풀고 곧바로 축구장으로 이동하여 500여명중 선발된 정예부대원들과 시합을 벌였다. 팽팽한 접전을 벌일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는 달리 젊은이들의 패기와 열정의 벽이 높아 3게임 연속 일방적으로 패하자 정예선수 대신 대대장과 주임원사가 직접 참가하시면서 일진 일퇴의 박진감 넘치는 경기가 계속 되었다.

우리는 이목사님의 인도로 부대내의 늘푸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며 500여명의 장병중 안 믿는자, 타종교를 가진자들의 영혼구원과 젊은 세대들의 신앙심 고취와 이 목사님이 선교사역을 잘 감당하시도록 또한 서울교회의 군선교사업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간절한 기도를 드렸다.

이후 송상희 중대장의 안내로 철책선 열쇠전망대로 이동하여 비무장지대와 T-bone 능선, 북측 시설



을 돌아보면서 열쇠부대는 1991년 통일의 열쇠가 되라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고 전망대 입구로 옮겨진 건물기둥에 쓰여진 희미한 글씨는 1952년 전투시 사망한 8명의 미군사망자의 명단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유 민주주의의 수호를 위해 젊은 목숨을 타국에 바친 저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우리들이 조국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야고보서 2장17절) 라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장차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들에게 신앙심을 고취하고 확고한 국가관을 심어 줄 수 있도록 서울교회 교인들이 앞장서며 비전 2020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라는 마음이 간절하였다.

### 동정

- 이종윤 목사는 12일(월) 서울교회에서 열리는 북한인권과 신앙자유를 위한 국제대회 개최 설교를 한다. 13일(화) 총회 주기도·사도신경 위원회를 15일(목)에는 장로교 신학회 월례회를 각각 소집한다.
- 2006년도 대학부 회장에 최진경 자매, 부회장에 박재원 자매 선출
- 주간식당봉사: 마리아전도회(12월11일) 에스더전도회(12월18일)
- 금주의 식사: 필그림 산우회(현당을 감사하며)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TV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케이블 CH 42(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li> <li>위성 CH 412(기독교방송) 매주 목 오후 5시</li> <li>KISB(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li> </ul>
라디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li> <li>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의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li> </ul>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독교 TV - (<a href="http://www.cts.tv">http://www.cts.tv</a>)</li> <li>중국어 인터넷방송 - (<a href="http://www.c-highway.com">http://www.c-highway.com</a>)</li> </ul>

##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교회학교 학생 1만명 이상, 100명 이상 선교사, 사랑의 집 건설체 하소서
2. 임명받는 일꾼들이 성령충만하여 사명자로 섬기도록
3. 2006년도 목회정책이 바르게 세워지도록
4. 대한민국의 정체성 회복과 북한의 신앙 자유 위하여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20분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영어예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요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30분
새벽기도회	매일새벽 5시30분

### 교회오시는 길

